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수요설교**

사르밧 과부

(왕상 17:1-16)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숭배를 일삼는 왕이여! 내 입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왕상 17:1).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쪽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피했다가 시돈땅 사르밧으로 가서 머무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릿 시냇가로 갔다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나를 먹이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셨고, 사르밧에서는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하셨으니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물론 사르밧 과부의 식구들까지 먹을 동안 통속의 밀가루도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도 먹이시지만 사르밧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먹이시길 원하셨고 마침내 죽게 된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갈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곳을 가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도 그리고 미래에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시 119:105) 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응답과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의 응답이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Widow at Zarephath

(1 Kgs. 17:1-16)

Elijah the prophet appears for the first time in the text in the Bible. He said to Ahab, the weakest King, in the Northern Israel, "King who scorns God and does idolatry habitually! There will be neither dew nor rain in the next few years except at my word" (1Kgs. 17-1).

Right after Elijah, the prophet declared God's word, God said to him that Elijah would hide and stay in the Kerith Ravine, east of the Jordan, and go and stay in Zarethath in the region of Sidon. He believed God's promise, and went to Kerith. After there, he went to Zerephath.

Elijah made sure that God kept his promise. God said that he would make Elijah drink the brook in Kerith by ravens and supply food there. And then the Lord had done it. Because in Zarethath, the Lord also would make the widow supply food, Elijah was sure that The Lord should supply him supply with food.

The widow of Zarethath believed and obeyed Elijah's word. Then, while not only Elijah but also the widow's family ate, the jar of flour was not used up and the jug of oil did not run dry. The word that Jehovah said to Elijah was accomplished. The Lord wanted to feed not only Elijah but also the widow of Zarethath and her son. Finally, He wanted to save the widow's son who was on the verge of death.

God never leaves us alone in the world. While in the world, he recorded his words, how we can lead our life of faith, how we can live our life in this world, what kind of choice we take, and with what kind of value we live our life. No matter how difficult situation we face, we must look to God who will led the way. Sometimes we might go to the way we did not want. Nevertheless, God who led us until now, should lead us to the right way of now and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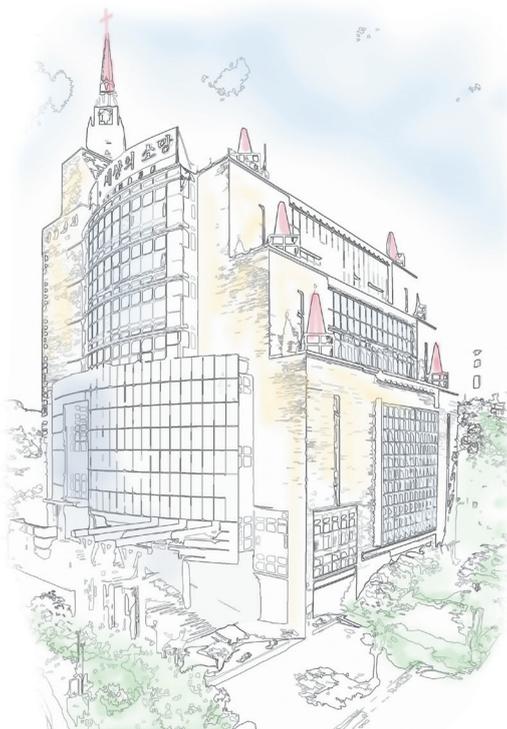
My beloved Christians,

The fact that we read God's word, hear, study, meditate, and obey is our life. David confessed,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Psalms 119:105).

I sincerely pray that the response of Elijah the Prophet who obeyed God and the response of the widow of Zarethath who obeyed the word of God's servant will become our respons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총회,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당회장의 독단적 인사는 무효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101회 총회 주제 : "다시 거룩한 교회로"(로마서 1 : 17, 레위기 19 : 2)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시 중로구 대학로3길 29, 309호(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내선9212) 전송 (02)741-4350 담당 : 윤미경 실장

문서번호 예장총 제101-339호
 시행일 2016. 12. 15.
 수신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17인
 참조
 제목 헌법해석 통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가 제출한 "당회장 단독의 장로 등에 대한 인사배정 임명행위의 효력에 관한 헌법질의(2016.11.16.)"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음을 통보합니다.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위) 제22조(항존직), 제5장(목사) 제25조(목사 직의무), 제6장(장로) 제1항, 제9장(치리회) 제2항, 제10장(당회) 제68조(당회의 직무),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1조(제직회) 제4항, 첨부된 서울교회 정관, 서울교회 운영규정, 각 회칙에 의거 당회장의 당회 논의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독단적인 인사는 무효이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1. 박노철 목사는 귀 총회 산하 서울강남노회 소속 서울교회의 당회장인바, 당회장은 2017.11.9(수) 저녁 8시 30분경 서울교회 제402호에서 정기당회로 당회원 재직 장로 26명과 목사 7명 등 33명이 전원 참석하여 개최된 당회에서 당회안건도 상정하지 않은 채 당회원의 결의는 물론 아무런 논의도 없이 2017년 당회원 장로들의 인사배정, 스테반회(안수집사들의 회의체)와 권사회(권사들의 회의체)인 제 1,2권사회 및 은퇴권사들의 회의체인 살롬권사회의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제직회 임원들을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고 퇴장해 버렸습니다.

2. 당회장은 당회원 장로들의 인사배정을 비롯한 모든 봉사자 임명은 당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라 당회장이 독자적인 권한이므로 당회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고, 11.11(금) 금요기도회에서도 교인들 앞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임명행위가 정당하다고 천명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임명한 장로들을 중심으로 추가로 각 부서의 세부 섬김위원들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11.13(일) 주일맞 1,2,3부 예배의 각 광고시간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 교인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질의) 그렇다면 서울교회 당회장의 '당회논의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독단적인

위 인사배정 및 임명행위는 헌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가 아닌지요(당회장은 마치 당연히 자신 독단으로 이를 임명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당회도 거부한 채 자신이 임명한 장로들을 중심으로 2017년도 서울교회 각 봉사부서의 세부조직을 준비하면서 직원들에게도 위 임명한 장로들에게 협조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시급히 그 무효여부를 확인받지 않으면 2017년도 서울교회의 인사행정이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이로 말미암아 교인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교회는 회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상황에 직면해 있어 귀 총회에 유권해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끝.



총 회 장 이 성
 헌 법 위 원 장 고 백



서문석 장로 (기획위원장)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교인들이 사역하는 목회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고 따라서 하나님 일꾼 중심으로 구조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회자가 올바른 청지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 일반도의 인사는 잘못하면 인정중심, 편향적 인사가 되어 부작용이나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때문에 무릇 지도자는 바르고 공정한 인사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적합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교회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기획위원회가 각 기관 및 위원회의 봉사자 임명 및 사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여 왔습니다.(교회 운영규정 제5조 2항 다) 이에 기획위원장은 지난 11월1일(화) 오후 7시에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섬김위원 임명 절차를 논의하여 선정기준을 예년처럼 "임직순, 봉사경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동일부서 1년 차는 가능한 고정시키고 2년차 이상 되는 보직중심으로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정하여 2017년 장로등 주요 보직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당회장상전 예년과 같이 미리 담임목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만날 것을 제의하였으나 담임목사님은 '기획장로의 임기는 올해까지이므로 다 새로 임명할 기획위원장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문자로 받고 이에 '다음해의 섬김위원 인사는 현재까지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임기 중의 기획위원장이 관장하여 준비하여 왔고 위원장은 당회장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자리가 아닐'을 누차 말하였지만 담임목사님은 11월 9일 정기당회로 모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협의도 없이 2017년 섬김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당회실을 나가 버려 당회는 더 이상의 논의도 못한 채 파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담임목사님은 금요기도회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의 인사를 장로들이 받아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을 요직(교회에 무슨 요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에 임명할 수 없고, 안 되면 서리라는 단서를 붙여서라도 하겠다고 여처구니없는 말로 성도들을 호도하였습니다.

또한 담임목사님은 양측 진영의 장로 2명씩 만나서 원만하게 협상하면 그 협의를 존중하여 받아들일겠다고 했는데, 인사는 주고 받기 식의 협상할 문제도 아니고 기획위원회라는 규정상의 공식절차가 아닌, 진영 논리로 양측 2명씩 나와 협상하는 규정도, 전례도 없거니와 규정을 무시하고 소수 몇몇 장로들이 그런 인사내용 절차를 논하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따라서 담임목사님은 전례와 규정대로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기획위원장이 당회서기가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기획위원회를 통과한 안을 중심으로 협의하여 당회에 상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담임목사님은 당회서기는 배제하고 단 둘이 만나 자고 하여 교회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든 만나 논의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당회서기에게 양해를 받아 12월 8일(목) 기획위원장 혼자 담임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담임목사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였지만 여전히 당회는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은 하면서도 공식석상에서는 기획위원장이 전혀 양보 없이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인사문제 이외에도 사임한 교역자들의 총원계획은 물론 내년 사역준비를 위한 각 부서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그에 따른 예산안 편성과 규정상 내년으로 다가온 담임목사 안식년 시행에 따른 준비 등 그밖에 시급한 당면 안건이 수없이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 담임목사님은 단순히 인사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당회가 소란할 염려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계속 당회를 거부하여 내년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 섬김위원 인사는 몇몇 소수 장로들의 협상대상도 아니고, 주고받는 식의 양보 사항도 아니며, 기획위원회 논의 사항을 당회장에게 보고하여 결재 받아야 하는 절차는 더더욱 없습니다.

교회행정 과정에서 인사관리는 가장 중요하고 그만큼 그 절차도 합리적이고 기준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섬김위원이 배치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담임목사님은 교회의 규정과 원칙을 따라 당회를 소집하고 그 안에서 교회의 제반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서울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성탄 절기에 주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장로 안식년규정』에 관한 응답에 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시 중로구 대원로3길 29, 309호(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내선92*2) 전송 (02)741-4350 담당 : 윤미경 실장

문서번호 예장총 제101-299호
시행일 2016. 12. 14.
수신 서울강남노회정
참조 서기
제목 헌법해석 등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귀 노회 "서강남 제58-224호,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질의서 이철 건(2016.10.17.)"과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 외 17인이 제출한 "성위선출 및 질의에 대한 의견서(2016.10.25.)" 건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음을 통보합니다.
해석 : 질의(1),2),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석용범위) 제3항에 근거하여 1992년 2월 1일(토)에 제정되어 시행하여 온 바,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정관규정이 있다면 개정하여야 한다."

질의나용 / 질의1) 서울교회 정관 제15조(의결) 및 효력발생)상, 본 정관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료(중서)에 의하면 1992.2.1(토) 서강남 노회로 승인됨. 당회는 통과되었는지 몰라도 공동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서울교회의 정관이 총회 헌법에 비추어 효력이 있는지
질의2) 위 규정 제2조(가) 제3항(신임투표)의 개시(시무)상, 담임목사가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가진 다음, 당회 3분의 2찬성에 의한 신임투표를 거쳐 재시무한다 라고 하는데,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중서2)은 제정근거인 정관의 위임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동규정은 총회 헌법에 비추어 효력이 있는지
질의3) 예장 통합 교단 헌법 제2편(정치) 제4장 제22조는 목사의 시무연한을 70세로 규정,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26조(직원선택) 제7항은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장로,집사,권사를 신임투표로 시임시킬 수 없다고 하여 항존직의 경우 재신임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상치되는 서울교회 정관,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발생 여부 (끝).

총회장이 성
헌법위원장이 고 백



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으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는 선언과, 제2조 교회의 자유에 “어떤 교회든지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지교회는 양심과 교회의 자유권에 따라 교회의 정치 조직을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는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서울교회는 1998년 목사 장로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권리적 성격은 물론 자기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의무의 성격을 겸유한(예외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 경우만을 특정하여 허용하는 규정형태임) 목사장로 안식년 및 재신임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첫 휴휴가 시행되는 2000년 공동의회를 거쳐 안식년 및 재신임 규정을 확정하였습니다.

3. 먼저 『안식년 규정』에 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서는 신임투표에 관해서만 제한할 뿐이고 지교회가 목사와 장로의 영적재충전을 위하여 안식년을 갖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또한 총회헌법 제36조(목사의 휴무) 및 제46조(장로의 휴무)에서 목사와 장로의 휴무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공동의회를 통과하였으므로, 서울교회의 안식년 및 재신임 규정 중 안식년에 관한 부분은 현행 총회헌법에 배치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논쟁의 필요 없이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박노철 목사가 시무를 시작할 당시 이미 위 규정이 13년째 시행되고 있었고, 시무 이후 자신이 직접 5년간 안식년 행사를 주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수차 준수약속을 한 이상 박노철 목사는 공동의회를 통과한 서울교회의 안식년규정을 아무런 이의 없이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 27일 장로안식년 당시 박노철 담임목사 발언

“우리교회는 장로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6년 동안 경작을 하다가 7년에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안식년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안식 하시면서 더 많이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다른 교회들도 둘러보면서 우리교회가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는 안식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 다음 『재신임투표 규정』 관련하여

박노철목사는 이미 지난 18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지켜오고 정착된 지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서울교회 부임 시에 이미 존재하는 안식년 및 재신임 규정의 준수를 약속하였으며, 실제 5년간 본인이 당회장으로서 장로들에 대하여 직접 재시무투표를 주재하였고, 나아가 자신도 당회와 성도들에게 수차 공개적으로 재시무투표 준수를 약속했으므로 안식년 및 재신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이 5년간 직접 주재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혹시라도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주재자인 자신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한 후 그 이후에 해당되는 자들부터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적 양심과 사회법상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또는 신뢰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참고로 이에 부합하는 대법원 및 하급심법원의 판단자료를 첨부합니다.

대법원 판례 (2006.0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로서,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기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지난 12월 16일(금) 박노철 목사는 상단 서류를 순례자에 기사로 신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순례자는 강남노회에 도착한 총회답변서와 함께 이 답변서 도착 이전(12월 9일)에 총회에 보낸 보충의견 및 참고자료를 게재한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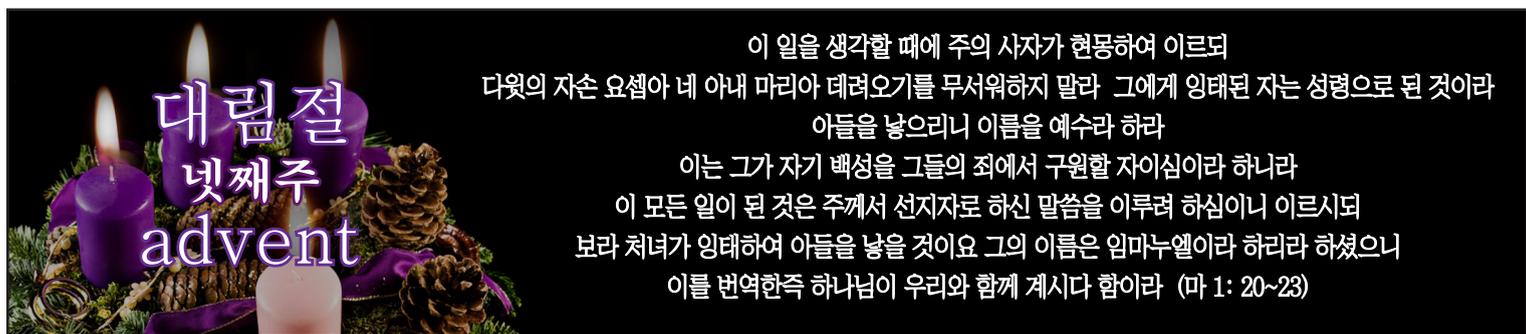
목사·장로 안식년제 참고자료

서울교회의 정관과 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서 관련
(접수번호: 예총 101-56, 101-65)

- 발신: 서울교회(서울강남노회 소속) 오정수 장로 외 17인(시무장로)
- 수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 참조: 헌법위원장
- 제목: 서울교회 담임목사의 “서울교회의 정관과 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 관련 참고자료제출

1.본 발신인들은 서울강남노회 소속 서울교회의 당회원 시무장로들(시무장로 27명중 2/3인 18명)인바, 서울교회의 박노철 담임목사 명의로 2016년 10월 17일 총회장에게 접수한 “서울 교회의 정관과 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접수번호: 예총 제101-56)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5일 치리회장의 불법적인 직권남용에 대한 행정조치요청과 위 질의와 관련한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의 제정경위 및 저희 당회원 18명 명의의 위 질의에 대한 의견을 드린바 있고 또 이와 별도로 11월 4일 “서울교회 안식년 및 재신임규정에 대한 질의”(접수번호: 예총 제101-65)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당시 발신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정치편 제1조 양심의 자유에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령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늘 찬양예배 시 / 교육1국 성탄 찬양



대림절 넷째 주로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교육부 서 성탄축하 특별행사가 있다. 이 행사는 유아·유치부의 성탄 찬양 및 율동으로 시작하여 유년부 엔젤스(반짝 반짝 성탄별), 초등부 글로리아(산타만 있던 크리스마스), 중·고등부 연합찬양대(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외2곡), 유·초등부 연합 찬양대(승리의 크리스마스), 유년,초등,연합2부(크리스마스 편지)로 이루어진다.

24일(토) 오후 7시에는 성탄 전야예배가 있고 성탄절 당일 25일(주)에는 새벽 5시에 성탄절 새벽예

배를, 25일이 주일인 관계로 성탄절 축하예배는 주일에배로 드리며 성탄감사헌금을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즐거운 성탄절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성탄절특별행사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이계홍 장로 (교육1국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11:1)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의심하게 되고, 인내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시므온은 당시 시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렸고, 안나 선지자 또한 성령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방인인 동방박사 세 사람도 유대인의 왕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별을 따라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탄생은 뜻밖에도 너무나 누추한 마구간이었습니

다.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기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교육 1국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기다리는 어린 영혼들이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 어린이들의 찬양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크리스마스의 추억



현혜성 집사 (16교구)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는 반짝 반짝 빛나는 트리 장식을 한 유치원에서 흰 수염에 빨간 옷을 입은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나누어주시고 캐럴을 부르며 즐거웠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무렵의 겨울은 나무들과 장독대에 소복이 쌓이도록 하얀 함박눈이 펄펄 내렸고, 12월이 오면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집까지도 소박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라디오나 TV에서도 하루종일 캐럴이 흘러나와 설레는 맘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 속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따뜻한 온기와 정과 사랑을 나누는 푸근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네 언덕에 있던 어릴 적 그 교회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진 설경 속 작은 교회의 외관과 비슷하게 붉은 벽돌에 첨탑이 있고 내부에는 나무 의자들이 줄 맞춰 가지런한 아담하고 정겨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어린이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여름 성경학교와 어린이 성가대도 출석하면서 한 아이가 태어나 모국어 습득하듯 교회와 예배와 찬양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초등 고학년이 되었을 때는 교회에서 성탄 전야에 마련한 '작은 음악회'라는 성탄축하 공연 중 사마리아인의 선행 이야기를 각색한 어린이 성가대 성극에서 '예수님,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을 노래하며 예수님께 감사드렸던 추억과 그 후 밤에서 새벽으로 이어지는 시간엔 가까호호 성도님들께 새벽송을 돌며 문 앞에서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렸던 감동적인 추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도 오랫동안 세상의 크리스마스와 예수님 탄생의 크리스마스가 생각과 감정에 혼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아이엄마로서 이사간 동네의 교회를 섬기고 제자훈련을 받으며 예수님 탄생의 의미와 크리스마스를 더 뜻깊게 느끼고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거나 흥에 겨운 크리스마스가 아닌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의 크리스마스로 진정한 기쁨을 갖고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더 시간이 흘러 서울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말씀을 만나고 찬양을 드리며 빛으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보다 함박눈은 보기 어렵고, 캐럴이 울리지 않는 거리는 차갑고 삭막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담은 따뜻한 마음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백승갑 집사 (7교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고 정송금 권사님!

지난 5일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에 가슴이 저러오고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지금도 제 곁에서 꼭 살아계신 것 같은 어머니... '어머니'이란 단어가 생각날 때 마다 떠오르는 어머니 생전의 모습을 통해 진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며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저는 이제서야 '천봉(天崩)'이란 참 뜻을 가슴으로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큰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매년 해오시던 건강검진을 통해 폐암초기진단을 받으셨을 때, 자식 된 도리에서 보다 잘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에 서울로 모셔서, 명의를 찾아 수술하도록 하셨는데... 잘 회복 되는듯 하더니 그만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서도 늘 새벽제단을 쌓아주시던 어머니! 진료하는 모든 의료진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고, 신앙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어머니! 교구지도 박영준목사님과 교우분들이 문병시에도 환하신 미소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

며 복음을 증거하신 어머니였습니다. 일평생 주님 믿음 안에서, 8남매의 맏며느리로서, 4남매의 어머니로서, 9명의 손주들을 두시고 대전서문교회 새벽제단에서 매일 3~4시간씩 기도의 금자탑을 쌓아주시던 어머니, 어머니의 기도와 바람대로 착하고 진실되며 매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손들에게도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기도대장이요 평생 신행일치의 삶을 사신 어머니!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차고 담대히 달려오신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기도가 더욱 더 필요하니 때..어머니를 천국보내드리고 망연자실할 뿐이지만 천국에서도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가시면서까지 주위를 밝히시고, 참사랑을 실천하신 어머니! 살아계실 때 평소 저희들에게 천국가게 되면 시신을 먼저가신 아버님의 뒤를 이어 후학을 위해 시신을 기증해달라는 뜻에 따라 모셔드렸지만 어머니의 그 훌륭하시고 아름다운 삶, 송고하신 뜻을 불효자인 제가 헤아릴 수 없어서 기도할 뿐입니다.

장차 어머니를 천국에서 반갑게 재회하고, 그간의 삶들을 어머니께 아뢴 때 주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어머니도 기뻐하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어머니의 새벽제단 기도소리를 제 가슴판에 달고 어머니께 누가 되지 않는 자녀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안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해나가겠습니다.

어머님 천국에서 안식하십시오 ~
어머님 사랑합니다 !!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
어머님 기도 잊지않겠습니다. !!



오승중 부장 (호산나 대학)

호산나대학에서는 2016년 12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제12대 총학생회의 주관으로 나눔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성금모금과 알뜰 바자회를 통해 총 3,600,000원이 모금되었고 가평군에서 추천 받은 관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연탄이 필요한 아홉 가구에 연탄 3,800장과 생필품을 전달하였습니다.

11월부터 성금모금과 바자회를 준비한 12대 총학생회장 이도은 학생은 "매년 학생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연탄 구입을 위해 학교에서 바자회, 성금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그 덕에 많은 연탄을 구입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배달까지 참여 할 수 있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탄을 받은 권순옥 할머니께서는 "매년 연탄을 주어서 고맙다. 눈이 보이지 않아 거동도 힘들고 할아버지는 다리까지 아파 집에만 있는 실정이다. 이런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번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질 뻔 했다."라며 따뜻한 커피 한잔을 주시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호산나대학 학생회는 매년 학생 전체회의를 통해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나눔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4일(토) 북해폐기전만민 서명운동대표자 회의를 소집한다.
- 주일식당봉사 : 에스더 전도회(12.18) 마리아 전도회(12.25)
- 금주의 식사제공 :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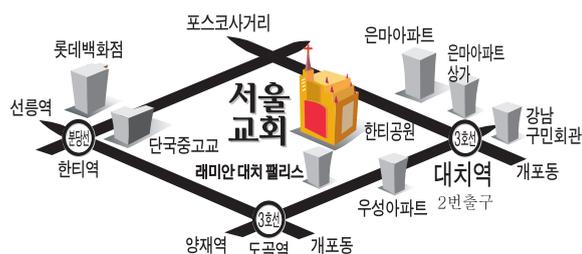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대립질 넷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2.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잘 계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